

루터의 결혼식

수도사가 결혼하다 !

도시 전체가 독일 전국에서 온 수만 명의 방문객들과 3일 동안 축제를 즐긴다 :
“ 루터의 결혼식 ”

이전에 수도사였던 마틴루터 (Martin Luther)가 수녀원에서 뛰쳐나온 수녀 카타리나 폰 보라 (Katharina von Bora)와 결혼 한지는 거의 500년 이 흘렀다 . 매년 6월 비텐베르크 시민들과 방문객들은 16세기의 전통의상을 입는다 . 그들은 수공업장에서 옛 장인들의 수공업을 체험해보고 모형을 본떠 새로이 만든 르네상스 시대의 악기들을 연주하기도 한다 . 또한 , 돼지고기를 꼬챙이에 꽂아 불에 구워 먹으며 맥주나 와인도 직접 따서 마신다 .

도시전체의 종교개혁의 역사적 현장 곳곳에는 떠돌이 행상인들과 먹거리를 가지고 나온 상인들이있고 마술사들이 마술을 선보이며 음악가들은 음악을 연주한다 .

어린이들은 중세 꼬마기사가 되어 놀이를 즐긴다 .

엘베 강가의 루터의 도시는 축제가 열리는 3일 동안 다시금 십만 명의 방문객을 기대한다 . 토요일 하루에만 만여명의 관광객들은 비텐베르크의 옛 건축물이 보존되어 있는 구역을따라 오후 2시부터 열리는 축제행진을 보며 환호하게 될 것이다 . 그 전통적인 축제행진에는 신랑 신부인 마틴과 카타리나는 물론 1000명의 결혼식 하객들도 함께한다 . 3개의 팡파르 기악대 , 20개의 음악 밴드 , 말 , 양 , 개 , 당나귀 , 닭 , 거위 , 흰 족제비에달하는 동물도 행진에서 색다른 볼거리이다 . 라트비아에서 온 결혼식 하객과 백 러시아에서 온 기사들은 이번 행진에 처음으로 함께한다 .

8개의 무대 위에서 각 시간대 별로 60개 이상의 다양한 행사들이 사람들의 기호에 맞게 기획 되어있다 :역사적 현장에서 중세시대 음악과춤 , 토요일 오후 5시부터 루터의 집 마당에서 열리는 루터와 카타리나의 피로연(결혼식 후의 축하 연회) ; 솔로스 키르헤(성전교회)에서의 장중한 파이프 오르간 연주 그리고 마을 광장의 무대에서는 대중음악의 공연 등이 준비되어 있다 .

일요일 오후 2시에는 비텐베르크시 소재 학교의 학생 1000여 명이 어린이 축제행진을 시작한다 . 행진에서 꼬마 하객들은 물론 꼬마 신랑신부 (비텐베르크 기독교 초등학교의 학생)도 전통의상을 입는다 .

문의처 : WittenbergKultur e. V. Tel. : +49 3491-419260

www.lutherhochzeit.de